

무주·영동·금산군 뭉쳤다

진안군민 삶의 만족도 '최상위'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총회 무주서 개최... 공동사업추진 방안 논의

20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14개 시·군 중 1위

황인홍 무주군수와 정영철 영동군수, 박범인 금산군수가 지난 16일 무주군청에서 만났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정영철 영동군수, 박범인 금산군수가 지난 16일 무주군청에서 3도3군 관광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만남은 올해 3도3군 관광협의회(사무국 무주군)의 공동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관광 분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3도3군이 손을 잡고 진행되는 관광 활성화 노력이 상생을 도모하고 무주와 영동, 금산 각 지역의 발전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들을 토대로 추진하는 무주방문의 해 추진 역시, 인근 영동과 금산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지자체는 올해 각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으로 △3도3군 연계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사업 추진 △3도3군 내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2024년 한국-베트남 우정의 거리 축제에도 참가해 각 지역 축제와 관광 상

품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3도3군 관광협의회는 2007년 인접 지역인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해 중부내륙권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세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그간 무주군의 태권도원과 구천동계곡을 비롯한 영동, 금산군의 대표 관광지들과 농·특산물 등의 먹거리를 연계한 정기상품, 수도권 외

온라인 블로거단 행사를 비정기 상품으로 운영해왔다.

2019년에는 관광 상품 개발, 중화권 관광설명회 및 캠퍼,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했으며 베트남 여행객들이 3도3군 여행상품을 통해 무주(덕유산, 태권도원 등)를 방문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치며 주목을 받는 등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델이 됐다.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202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군민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분야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삶 부문 7.24점(10점 기준)으로 1위, 지역 생활 부문 7.22점 1위, 행복(어제) 부문 7.24점 1위 등 3개 항목 모두 1위를 차지하며 14개 시·군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 69.21점(100점 기준)으로 1위, 건강에 대한 측면 69.66점 1위, 사회적인 측면 70.10 1위, 정신적인 측면

72.81점 1위로 조사대상 4개 항목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향후 10년 이후 시·군 거주 의사를 묻는 분야에서도 임실, 고창에 이어 3위(86.6점)에 올라 진안군에 대한 진안군민의 각별한 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안군은 앞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종합지수 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최상위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삶의 만족도 최고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 행복과 삶의 만족은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기본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고 싶고, 살기 위해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 창립 위한 발기인대회 개최

회원 모집·사업시행 등 계획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진안을 외사양마을의 마이산에 코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 내의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발기인과 군의 관광부서 공직자, 관광협의회 창립 준비단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단법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를 고부 회원으로 모집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협의와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시행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9명의 발기인들은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 창립 절차를 지원하고, 진안군 관광발전을 위한 공적 이익 추구 등 법인 창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진안을 외사양마을의 마이산에코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립의 목적을 정하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취지문을 확정했다.

이어서, 발기인대표 선출, 사단법인 회원모집 절차 및 공고문 확정, 재산출연(일반회원 임회비 및 연회비 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역 내의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진안군 관광협의회는 관련 법

령과 상급 주무관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침에 따라 50명 이상의 회원과 2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조성 후 법인 형태로 출범하게 되며 도 승인 및 법인 등기에 따라 최종 창립된다. 창립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초까지 회원모집 및 출자금 모금을 완료하고, 3월 15일 군청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무주군이 2024년도 제16기 반딧불농업대학 운영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농업대학은 무주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의 장으로, 올해는 '사과과'와, '복분자과', '스마트강소농과' 등 총 3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사과과)과 수요일(복분자과), 목요일(스마트강소농과)에 농업과학관 세미나실, 농민의 집, 농가 포장 등에서 진행(과정 당 주 1회 4시간 이상) 한다.

수강생들은 과정에 따른 △다축형 사과 재배 기술을 비롯해 △고품질 복분자 재배 기술, △농업경영과 법률 기초, △현장학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농기계 안전 사용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해서도 공동으로 듣게 된다.



무주군은 오는 21일까지 교양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무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에 비치돼 있으며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신청서(사진 첨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ujul1975@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참여팀 모집

진안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조직 육성을 위한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은 내년 개원 예정인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 운영 등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 주도적인 지역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창업단체나 기존 단체에게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올해는 총 10팀 선발예정인 신규 조직 4팀을 선발해 팀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조직(작년 지원사업 참여팀) 6팀을 선발해 팀당 1,000~1,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신청,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수제간식 만들기 체험

장수군은 지난 15일 '드림스타트'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여성 청소년문화센터 요리실습실에서 '내가 만드는 영양만점 수제간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너 모양의 다양한 수제 오렌지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드는 체험으로 운영돼 참여 아동이 푸드테라피 체험 활동을 통해 시각·촉각 등 오감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또래들과 함께 활동해 사회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사 먹던 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니 흥미로웠고 새로운 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오늘 수업에서 배운 대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만들어 먹고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이원일 요리연구가 초청 강연 21일 실시

무주군이 자연특산물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 식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이원일 요리연구가 초청, 친절 마케팅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는 친절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엔데믹 이후 변화된 외식 시장에 걸맞은 정보들이 다수 공유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원일 강사가 요리 연구가, 외식업체 오퍼 세프로 일하며 현장에서 직접 겪고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풀이해줌으로써 알려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친절서비스가 자연특산물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쪽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를 초빙하게 됐다"며 "관련 직종의 많은 분이 함께하면서 자력도 받고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